



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 장 심갑보
 편집인 :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전 화 : (02)2267-7857
 (02)2267-9339
 F A X : (02)2269-7755
 인 쇄 : 대신인쇄
 070-7779-3019

제121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6년 9월 30일

4세조 청성백 재각건립 본격 추진

- 2017년 가을 청성백 제향일에 재각 준공식 예정 -

4세조 청성백·정안공 휘(덕부)선조님은 고려 말에 서해도원수로서 왜구 토벌에 빛나는 많은 업적을 남기셨으며 문화좌시중을 2번씩이나 역임하셨고, 조선조에서는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의 관사(判事)로 임명되어 한양의 궁궐과 종묘 영건(營建)을 총괄하여 신도건설(新都建設)을 주도하셨으며, 당시 영의정에 해당되는 벼슬인 좌정승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영의정이신 다섯째 휘 온(溫)을 비롯한 7남을 두시고 소헌왕후를 손녀로 두시어 오늘날 우리 청송심문을 크게 번성케 하였고, 명실공히 심문을 명문가로 만드신 가장 훌륭한 우리의 현조(顯祖)님이십니다.

또한 청성백께서는 효성이 지극하시어 아우인 악은공(諱: 元符)과 함께 할아버지이신 함문지후공(諱: 淵)의 묘소를 경남 산청에서 조선의 명산(名山)이라고 불리는 전북 익산의 함열 남당산으로 천장(遷葬)하셨으며, 아버님이신 휘 용(龍)을 청화부원군(靑華府院君)으로 추봉(追封) 받게 하신 효자이십니다.

휘 광언(光彦)·통원(通源) 선조님께서 삼한대성(三韓大姓)인 청송심문에서 족보가 없는 것을 개탄하시고 1545년도에 최초로 대종세보(을사보)를 발간하셨듯이, 대종회 감보회장님께서도 우리 청송심문을 삼한대성으로 이끄신 선조님의 재각이 없음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재각 창건을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재각건립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15년10월에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2016년

7월에 재각건축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건축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국 종인들께서 이번 청성백 추향일(2016년 10월 15일)에 재각건축 기반공사가 완료된 현장을 확인 하시기 될 것입니다.

항간에 “대종회는 옛날에도 재각 건립을 계획한 적이 있으나 실행하지 못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재각 건립을 완성할 수 있을까?”하는 의심의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종회 현 집행부는 1) 대종회 재산 입에도 50여 년간이나 대종회 명의로 이전하지 못했던 안성 3세조 청화부원군 및 배위묘역을 2014년도에 대종회 명의로 이전 조치하였고, 2) 장학사업도 50여 년간이나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정착시켰으며, 3) 지난 50년 동안 자금난으로 몇 번씩이나 발간이 중단되기도 했던 심문의 소식지 종보(宗報)도 전국 종인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원활하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 종인들께서는 현 집행부에 적극 힘을 실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시며, 감보 회장님께서도 청성백 후손으로서 그동안 참으로 송구스러웠으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평소의 신념과 함께, 전국 종인들의 열망으로 추진되는 청성백 할아버님의 재각 창건은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1년 후인 2017년 가을 청성백 제향일에 전국의 종인들께서 그토록 열망했던 청성백·정안공 재각 준공식이 거행됩니다.

천상에서 후손들을 바라보시는 청성백·정안공 선조님께서도 후손들의 단합된 모습과 정성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실 것입니다. 재각 건립을 위해 기꺼이 헌성하신 종인들께서는 대종회 종보에 기록되어 우리 문중의 역사에 길이 남겨질 것이며, 일정금액 이상(개인 1천만원, 종회 5천만원) 헌성한 경우에는 재각건립비에 함께 새겨서 조상님에 대한 효(孝)와 보은(報恩)의 고귀한 정성이 영원토록 후세에 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재각 준공은 꼭 1년이 남았습니다. 청성백·정안공 선조님의 재각 창건에 후손된 도리로서 다 함께 정성껏 헌성하여 조상을 섬기며 효를 실천함으로써, 후대에 귀감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년 9월 30일
 청성백·정안공 재각건립추진위원회 간사
 (대종회 총무이사) 심언태



2017년 가을 준공되는 청성백 재각 조감도

2016년 丙申年 秋享祭 奉行 日程表

대종회 주관											
世	諱(이름)	양력	음력	요일	장 소	世	諱(이름)	양력	음력	요일	장 소
始祖	文林郎(諱:洪孚)	10.9	9.9	일	청송군 청송읍 덕리산33. 보광산	三	靑華府院君 配位金氏	10.13	9.13	목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산64 묘전
	中臺墓所	10.9	9.9	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산1, 중대산	三	判書公(諱:漣)	10.25	9.25	화	철원군 동성읍 양지리31.(설단)
二	閭門祗候公(諱:淵)	10.11	9.11	화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산64-1. 남당산	三	上護軍公(諱:鄉)	10.25	9.25	화	철원군 동성읍 양지리31.(설단)
二	奉翊大夫公(諱:晟)	10.25	9.25	화	철원군 동성읍 양지리31(설단)	四	靑城伯(諱:德符)	10.15	9.15	토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10
三	靑華府院君(諱:龍)	10.13	9.13	목	안성시 당왕동 산19-6	四	靑城伯配位 淸州宋氏	10.17	9.17	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265-1

대종회 주관 時享 奉行時間 : 시조 제향은 12時(正午) 그 외는 午前11時에 奉享함

제1회 대동세보 을사보(乙巳譜·1545년) 서문

씨족의 족보가 있는지는 오랜 예부터이니 주나라의 종법(宗法)과 한(漢)나라의 세표(世表)가 이것이다.

생각하건대 우리 청송심씨는 진실로 우리나라의 삼한대성(三韓大姓)이다. 문림랑(文林郎)으로부터 청성백(靑城白)과 그 이하에 이르도록 자손의 재능이 뛰어나고 행의(行誼)가 아름다워 그 조상이 남기신 빛나는 풍도와 은택(恩澤)이 대대로 더욱 창성하여 공경(公卿)이 끊이지 않고 계속하여 배출하고 높은 벼슬(貂蟬:초선)의 아름다운 명성이 길게 이어짐은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고 두터우면 가지가 무성한 것과 같고 물의 근원이 깊고 멀으면 마르지 않고 언제나 흐르는 것과 같으니 어찌 특별히 진(晉)나라의 왕씨와 사씨(王謝)2) 당(唐)나라의 최씨와 노씨(崔盧)3)에게 그치지겠는가.

더구나 소헌성모(昭憲聖母)가 나시어 세상의 왕후(皇后:태임과 태사)4)가 되시고 바로 성군을 탄생하시어 대대로 이어 받으시고 왕실의 경사로운 복을 받고 왕손의 상서(祥瑞)5)를 널리 퍼시었고 뿐만이 아니라 후손(瓜瓞:과질)6)이 오래 계속되어 끊이지 않음과 같은 것은 진실로 일찍이 듣지 못하였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부자(父子)가 있으면 형제가 있어 아저씨와 조카가 되고 당숙과 종질(從姪)이 되어 처음에는 친근하였다가 종국에는 소원하여지며 가까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타성과 같이 되고 이에 나누어지니 이는 비록 사리와 형세가 그렇게 되었더라도 그 융성하고 쇠퇴되는 사이에 유감이 없을 수 없다. 그 하고자하는 점을 분명히 가리키고 내 파(派)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족보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 간절함이 없다.

이제 감사 심공 광언(光彦)씨께서 도내를 순시하시다가 순천부에 찾아오시어 통원(通

源)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안의 문벌이 성(盛)하지 않음이 아니며 늘 집안에 전하여 오는 가업(家業)을 저술한 것이 없어서 나의 선친께서 여기에 뜻을 두시었다가 이루지 못하고 손수 초안하신 원고만이 남아 있어 선친의 뜻을 계승하여 저술하려고 생각하며 마음속에 품고 개탄한지가 오래 되었다. 다행하게도 이제 나와 부사가 마침 이 전라도에서 만났으며 보좌관 유군 사(柳君 泗)도 또한 심씨의 외손이니 하늘의 뜻인가. 또한 우리에게 오늘을 있게 하였음이니 부사는 힘쓸지어다」하시고는 마침내 초안한 보첩(譜牒)을 주었다.

이에 본파와 지파를 자세히 연구하고 빠진 것은 보충하고 잘못된 것은 고증하여 동성(同姓)이면 비록 서자(庶子)라도 빠뜨리지 않고 외손은 세대를 계산하여 간략하게 조절하니 남아있는 흠결이 없는 듯 하나 선조의 생졸(生卒)과 배위의 벼슬이 없어서서 혹 찾기 어려움을 염려하였다.

그러므로 행장(行狀)과 비명(碑銘)을 족보의 후면에 모두 붙여 선조의 덕행을 사모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침내 재(梓)나무관에 새기어 영구히 이를 전하기로 하였다.

아! 이 족보를 같이한 사람은 모두 하나의 근본이 만 가지로 갈라지고 천 가지의 끝이 한 줄기이니 근본을 알아서 친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누가 감히 먼 일가라고 하여 길가는 사람과 같이 가볍게 보겠는가.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돈독히 하고 선비는 서로 숭상하고 돈독하며 자신으로부터 가정, 가정으로부터 나라를 다스리어 주례(周禮)7)의 대사도(大司徒)8)의 외교와 빈흥(賓興)9)과 육행(六行)10)의 가르침이 장차 다시 이 세상에 행하여질 것이니 또한 풍교(風教)11)를 돕는데 일조가 되리다.

가정 을사(인종원년 1545) 6월 1일에 후손 통원대부 행 순천도호부사 순천진병마첨절제사 겸 감목 통원(通源)은 승평관에서 씌

이상은 만취당공께서 1545년 제1회 을사보를 발간하면서 쓰신 서문이며, 공께서 을사보를 발간하신 이후 지금까지 457년 동안 10회의 대동보가 중간되었다. 그러나 한 때는 나라의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100년이 훨씬 넘도록 족보를 발간하지 못하였던 때도 있어 많은 일가분들이 족보에서 누락되었는가 하면 전란으로 인해 제1회 을사보(1545년) 제2회 임술보(1562년) 제3회 무인보(1578년)가 실전(失傳)되거나 소실(燒失)되어 전해오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註 -----

- 1) 초선(貂蟬) : 여러 가지 높은 벼슬들
- 2) 왕사(王謝) : 진(晉)나라의 왕도(王導)와 사안(謝安)은 모두 명가(名家)이다.
- 3) 최노(崔盧) : 북주(北周)의 최유(崔猷)와 노변(盧辯) 모두 명인(名人)이다.
- 4) 임사(妊姒) : 주(周)나라 文王의 어머니와 文王의 王后
- 5) 상서(祥瑞) : 복스럽고 길한 징조
- 6) 과질(瓜瓞) : 넝쿨이 길게 뻗음. 즉, 후손이 번성함
- 7) 주례(周禮) : 주나라의 예법
- 8) 대사도(大司徒) : 문교부장관 같은 교육 책임자(총효를 다스리는 곳)
- 9) 빈흥(賓興) : 주대(周代)에 선비를 채용하는 법
향음주(鄉飲酒)의 예로써 빈객(賓客)을 삼아 추천하는 일
- 10) 육행(六行) : 여섯 가지의 선행 (孝·友·睦·任·恤)
- 11) 풍교(風教) : 풍습을 교화함

역대 대동세보 발간 현황

回數	族譜名	發刊年代	發刊者	실존여부	비고
1	乙巳譜	1545년(仁宗元年)	順天府使 通源 (左議政)	失傳	1545년(仁宗 元年) 乙巳에 좌의정공(通源)이 순천부사로 있을 때 당시 전라감사로 계시던 호안공(光彦)과 협의하시어 순천부에서 개간된 단 권책이며 책판은 순천부에 두었다고 함
2	壬戌譜	1562년(明宗17年)	全州府尹 銓 (監司)	失傳	그 후 17년만인 1562년(明宗 17年) 壬戌에 감사공(銓)이 전주부윤으로 있을 때 속수(續修)하고 원판은 순천에서 전주로 옮겨두었다 함
3	戊寅譜	1578년(宣祖11年)	全羅監司 義謙 (靑陽君)	壬亂燒失	그 후 16년만인 1578년(宣祖 11年) 戊寅에 청양군(義謙)이 전라감사 때에 진원현(후에 장성속현이 됨)에서 증수(增修)하고 보판도 모두 진원현으로 옮겨두었다가 정유재란에 모두 잃어버렸다고 함
4	己丑譜	1649년(仁祖27年)	榮川郡守 長世 (覺今堂)	2卷 1帙	그 뒤 71년만인 1649년(仁祖 27年) 己丑에 교리공(熙世)이 속수하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형님이신 군수공(長世)이 영천(후에 榮州와 합군) 군수로 계시며 재수(再修) 하심
5	癸巳譜	1713년(肅宗39年)	大司憲 檀(編纂) 順興府使 得良(刊行)	浮石板本 4卷	그 후 63년만인 1712년(肅宗 38年) 壬辰에 보국공(檀)이 증좌찬성공(檀)의 뒤를 이어 증수(重修)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1713년 癸巳에 부사공(得良)이 순흥부사로 계시면서 간행한 4권책이며 보판은 부석사에 두었다 함
6	癸卯譜	1843년(憲宗 9年)	判敦寧府事 能岳	活字版 27卷	그 뒤 75년만인 1787년(正祖 11年) 丁未에 참판공(基泰)이 속간하다가 마치지 못하여 이를 丁草라고 함 그 뒤 23년만인 1810년(純祖 10年) 庚午에 군수공(能定)이 증수하다가 또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庚草라 함 그 뒤 22년만인 1832년 壬辰에 판돈영공(能岳)이 다시 속수하여 그 후 12년만인 1843년 癸卯에 중간되어 서울에서 발간한 27권책으로 부편이 4권임
7	癸巳譜	1893년(高宗30年)	廣州留守 履澤	活字版 31卷	그 후 31년만인 1873년 癸酉에 판서공(承澤)이 속수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그 후 다시 9년만인 1881년 辛巳에 판서공(履澤)이 廣州유수로 계시면서 속수하여 13년만인 1893년 癸巳에 중간된 31권책이며 인수부운공과는 합보되지 않았음
8	庚申譜	1920년(臨政 2年)	內部協辦 相翊	活字版 24卷	그 후 37년만인 1918년 戊午에 내부협판공(相翊)이 서울에서 속수하여 1920년 庚申에 중간된 24권책이며 부편 폐지됨
9	丁酉譜	1957년	大同譜編纂委員長 福鎭	洋裝 6卷 北韓宗族未單	1956년 서울에서 대동보편찬위원회를 결성하고 1957년 10월에 중간된 양장 6권책이나 내용이 경신보와 상위된 곳이 있다고 하여 종중에서 이론이 있는 책임
10	戊戌譜	1958년(1972刊行)	讚慶會副會長 鍾益	洋裝 4권 北韓宗族未單	1957년 정유보의 잘못된 곳을 바로 잡고자 1958년 戊戌에 찬경회 부회장 鍾益공께서 증수에 착수하여 1972년에 중간된 양장 4권책임
11	庚辰譜	2000년(2002刊行)	大同譜編纂委員長 兼 大宗會長 明求	洋裝 12卷, CD롬 北韓宗族未單	2002년 9월 양장 12권(수권, 자손록 10, 색인부)으로 발간하였으나, 4개과에서는 별도의 과보를 발간하였음. 2007년 12월 대종회 홈페이지에 인터넷족보시스템을 구축한 후 2009년 9월 별도로 발간된 과보를 모두 합보하여 등재하고 향시 수단접수 체계를 구축함



4세조 청성백·정안공 초상화 '장수군도(將帥軍圖)' 발견

627년 전 위화도 회군 현장에 있던 장수 셋의 초상화 장수군도가 발견되었다. 출정을 앞두고 찍은 기념사진인 셈이다. 가운데가 이성계(1335~1408)라고 한다. 좌 이지란(1331~1402), 우 심덕부(1328~1401)가 호위하고 있다. 용과 호랑이 등 용맹의 상징들도 보인다. 비단에 채색하고 장지로 배접한 이 그림(90×160cm)의 제목은 '장수군도(將帥軍圖)'다. 1000년을 간다는 장지는 거의 녹아내린 상태로 세월의 흐름을 전하고 있다. 소장자는 "장쩌민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였을 때 베이징에서 현지 고위층에게 선물받은 것이다. 어려운 부탁을 들어줬더니 원나라대 용문매병과 함께 이 회군 기념도를 줬다. 그림을 처음 입수한 사람은 자신이 평양에 파견했던 직원이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누가, 언제 그렸는지 표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도화서나 자비대령화원 등 국가 미술기관의 그림에 개인의 서명이 없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했다.

장쩌민(89)은 1989~2002년 총서기로 재임했고, 이 고위층은 1995년 청와대를 찾아와 김영삼(1927~2015) 대통령도 만난 것으로 확인된다. 위화도 회군도는 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 있었던 셈이다.

명나라 요동 정벌차 출정했던 이성계 등은 1388년(고려 우왕 14) 음력 5월 의주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에서 회군, 우왕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장악했다. 이성계는 우군도통사, 이지란은 우군 조전원수, 심덕부는

좌군(도통사 조민수)의 서경도원수였다.

심덕부와 이지란은 1390년(공양왕 2) 책봉된 회군공신 45명에 포함되었으며 회군 1등공신이다. 이듬해에는 공신전도 받았다.

'위화도 회군도'의 심덕부와 대조할 만한 영정은 남아있지 않다. 이지란은 귀화 외국인다운 용모다. 본명이 통두란(통구룬투란티무르)인 이지란은 여진족 출신이다. 전해지는 초상화와 유사하다. 이성계는 7세 연상인 심덕부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



장수군도 (왼쪽부터 심덕부, 이성계, 이지란)

출처 : newsis (2015년 12월 18일)
정보제공 : 공속공파 성래(인천)

소장자는 2017년 문화재로 신청 할 계획이라고 한다. 진위여부는 그때 가려지겠지만 무엇보다도 4세조 청성백 할아버님의 초상화를 보니 감개무량하다. 흐릿하지만 보는 순간 친숙함이 느껴지고 근엄하고 기개가 넘

치는 모습이다. 대종회는 고증 등의 절차를 거쳐 장수군도 초상화의 청성백 사진을 2017년 가을 준공되는 청성백·정안공 재각에 모실 영정(影幀)으로 사용을 검토중이다.
- 대종회 문화이사

沈영감 심민섭



2015년 성씨 인구조사 결과

성씨별 인구수 순위

심씨 본관별 인구수	
심(沈)	271,749
청송	240,768 (88.6%)
삼척	17,034 (6.3%)
풍산	11,187 (4.1%)
기타	2,760 (1%)

순위	성씨	인구수	순위	성씨	인구수	순위	성씨	인구수	순위	성씨	인구수
1	김(金)	10,689,959	11	한(韓)	773,404	21	유(柳)	478,990	31	남(南)	275,648
2	이(李)	7,306,828	12	오(吳)	763,281	22	고(高)	471,396	32	심(沈)	271,749
3	박(朴)	4,192,074	13	서(徐)	751,704	23	문(文)	464,040	33	노(盧)	256,229
4	최(崔)	2,333,927	14	신(申)	741,081	24	양(梁)	460,600	34	정(丁)	243,803
5	정(鄭)	2,151,879	15	권(權)	705,941	25	손(孫)	457,303	35	하(河)	230,481
6	강(姜)	1,176,847	16	황(黃)	697,171	26	배(輩)	400,641	36	곽(郭)	203,188
7	조(趙)	1,055,567	17	안(安)	685,639	27	조(曹)	398,260	37	성(成)	199,124
8	윤(尹)	1,020,547	18	송(宋)	683,494	28	백(白)	381,986	38	차(車)	194,782
9	장(張)	992,721	19	전(全)	559,110	29	허(許)	326,770	39	주(朱)	194,766
10	임(林)	823,921	20	홍(洪)	558,853	30	유(劉)	302,511	40	우(禹)	194,713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송심씨 인구수를 족보등재 인원인 29만명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15년에 실시한 통계청의 성씨인구조사 결과인 24만명을 공식자료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살의유머

당신은 어느 대학에 다니는 노인인가요?

노인이 되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모두 대학생이 되는데 나는 어느 대학의 학생인지 찾아보세요.

- 서울공대 (서럽고 우울해서 공원에서 시간 보내는 노인)
- 동경대 (동네 경로당에서 시간 보내는 노인)
- 전국대 (전철과 국철로 종일 시간 보내는 노인)
- 연세대 (연금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노인)
- 고려대 (고상하게 여행이나 다니는 돈 많은 노인)
- 건국대 (건강한 몸으로 국민연금 받고 사는 노인)
- 방곡대 (방안에 콧 박혀 하루를 소일하는 노인)

-대종회 관리부장-



연어와 가물치의 교훈

첫 번째 물고기는 연어(salmon)입니다.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 한쪽을 지키고 앉아 있게 되는데 이는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아직 먹이를 찾을 줄 몰라 어미의 살코기에 의존해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미 연어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 내며 새끼들이 맘껏 자신의 살을 뜯어먹게 내버려 둡니다. 새끼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어미는 결국 뼈만 남게 되어가며 소리 없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모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물치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가물치는 알을

낳은 후 바로 실명을 하여 먹이를 찾을 수 없어 그저 배고픔을 참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부화되어 나온 수천마리의 새끼들이 천부적으로 이를 깨닫고는 어미가 굶어 죽는 것을 볼 수 없어 한 마리씩 자진하여 어미 입으로 들어가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 시간이 지나 어미가 눈을 뜰 때쯤이면 남은 새끼의 양은 십분의 일조차도 안 된다고 하며, 대부분은 자신의 어린 생명을 어미를 위해 희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 라고 합니다.

제공: 상은 증보편집위원회 고문

종인 소개

아동문학가 沈厚燮 종인



심 후 섭 (沈厚燮)

- 1951년 경북 청송 출생
- 아동문학가 · 교육학박사
- 전 : 대구달성교육장
- 현 : 우리예절교육 원장
종보편집위원

어느 파 몇 대손이신가요?

악은공 지하 석촌공파이고, 24세입니다.

성장 과정과 배경은 어떠하셨는지요?

청송 덕천마을에서 10여Km 거리에 있는 진보 광덕에서 태어나 그곳 읍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도에 치러진 제2회 대학입학예비고사에 합격하여 대구교육대학에서 학생회 학예부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신 보람이 있다면?

첫 발령은 고향 면내(面內) 신촌초등학교로 났습니다. 그곳에서 학습지도 공로 표창을 받고, 모교인 진보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문예지도, 교육연구공로로 표창을 받고 대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주문학상 공모 부문에 동시(童詩)가 당선되어 아동문학가로 데뷔하게 되었고, 그 뒤 <월간문학>,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 등에 동화(童話)가 당선되어 동화작가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여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훌쩍 흘러 2015년 2월 43년간 몸담았던 교직에서 정년퇴임하게 되었습니다.

교직에서 여러 요직을 거쳤다고 하던데요?

대구에서는 경북대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에 뽑혀가게 되었습니다.

사범대학생들의 교육실습을 담당하는 학교였기에 특기와 경력이 있어야 하였고, 경쟁이 치열하였지만 그 동안의 문예지도, 교육연구 등의 경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무난히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계속해서 연구 활동을 거친 끝에 장학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대구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대구남부교육청 장학사를 거쳐 시교육청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전체에서 추진하는 여러 교육시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뒤, 초등학교 교장을 거쳐 시교육청 과장으로 발탁되었는데, 교육과정운영과장을 맡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창의인성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초대 창의인성 교육과장을 맡게 되었고, 이 때 좋은 시 읽기

운동의 생활화, 아침 독서 10분 운동의 추진, 학생저자 10만 양성 운동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공로로 대구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명되었고, 한국일보사 주관 제28회 한국교육자대상, 제32회 대구시문화상(교육부문)도 수상하였습니다.

교과서에도 작품이 실렸다고 하던데요?

제가 쓴 작품 중 동화 '세상에서 제일가는 정원사'와 동시 '봄비'는 지금도 초등학교 2학년과 6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과서가 개편되었지만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시 '꽃눈'이 초등학교 5학년 국어교과서에, 동요 '외가길'이 3학년 음악책에, 예술가곡 '아카시아'가 중학교 2학년 음악책에 실려 있었습니다.

또 그 전에는 동시 '비오는 날'이 초등학교 4학년 국어책에, 동요 '가위 바위보'가 3학년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바 있습니다.

책도 많이 내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70여 권 내었습니다. 주로 아동도서입니다. 그러나 대학교재인 <아동문학>과 청소년용 <삼강행실도> 등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 동안 낸 책 중에는 <선비 이야기> 8권, <나무 이야기> 여섯 권, <소 이야기> 세 권 등이 시리즈로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도깨비방망이의 행방>은 문화부 선정 우수도서로, <싸리울의 분홍 메꽃>은 제1회 MBC 아동문학상 수상작으로, <사탕수수나라 털보곰곰>은 한국아동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나무를 소재로 한 과학동화 <식물은 참 신기해>를 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서 더 좋은 책을 쓸 예정입니다.

혹시 가슴에 새기고 있는 좌우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선고(先考)께서는 제가 초등교직에 첫발을 디딜 때에 <논어> 향당편에 나오는 공자의 행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구절은 '아무리 화가 나도 남에게 옮기지 아니하였고, 한번 한 실수를 두 번 거듭하지 않았다.(不遷怒 不二過)'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교직에 임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교훈으로 여기고 늘 가슴에 새겨왔습니다. 선고께서는 2대 독자이셨습니다. 아들이 교직에 나가게 되었으니 선고의 감회는 남달랐으리라 생각됩니다.

뿌리교육에 참여하셨는데 소감이나 개선점은?

종인 여러분의 진지한 태도와 이 행사를 주관 해주신 대중회 임원 여러분의 노고와 섬세한 배려에 대해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작은 음악회를 열어 종인들을 환영해주시고 연수회

일정에 모두 참석해 주신 청송 거주 여러 종인들의 깊은 환대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개선 의견이 있다면 새로이 청송 심문으로 시집을 와 가정을 꾸리는 젊은 층을 보다 많이 참석시켜 가문의 긍지와 자부심을 좀 더 심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근황은 어떠하신지요?

한국문인협회 이사, 한국아동문학가협회 부회장, 대구문인협회 수석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식물은 참 신기해>라는 동화책을 내었습니다. 이 책은 동화 형식으로 쓴 자연과학 인문서적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주 독자로 하고 있는데, 아픈 친구를 위해 약초를 찾아 나선 학생들이 겪는 우정과 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청송 덕천마을을 널리 알리는 스토리텔링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위에 여러 교육적 자원들을 스토리텔링화 하는데 힘을 쏟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인성스토리텔링연구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안의 위인들의 일화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화 하는 작업도 시도하겠습니다.

■ 종인 탐방을 마치며

오늘 만나본 후섭 종인께서는 교육자로서, 아동문학가로서 열정적으로 살아 왔다는 생각이 앞선다. 교육자로서의 업적은 차지하고, 문학가로서 70여권의 많은 저서를 내었다는 것에 놀랐다. 특히 동시, 동요가 교과서에 실리고 문화부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으며 대구시 문화상, 한국 아동문화상 등 주요 기관 단체의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여 한국문학사에 길이 족적이 남게 되어 심문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우리 심문의 분향인 청송과 집안 위인들의 일화를 발굴, 스토리텔링하여 심문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긴 생명력을 가진 양서를 더욱 많이 저술하기를 기원 드린다.

2016. 9. 5

글. 대담 : 성택 편집위원

동석 : 갑택 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차기 종인 소개 예정

■ 2016년11월(중보122호)예정

차기 종인 탐방 : 심백강 역사학자

탐방일 : 2016년 11월초

탐방원 : 재운 편집위원, 갑택 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송정초등학교 교정 심후섭 시비 제막식



대구광역시 문화상 수상 장면



좌로부터 후섭 박사, 성택 편집위원, 언태 총무이사, 갑택 문화이사

나는 자랑스러운 청송 심씨다



심정현
28世
인수부윤공파
육군 중위

“청송 심씨에 대단한 머
느리가 나왔다.”인수부윤공
파종중과 어머니의 통화내
용 중 말씀이다. 그 대단한
만머느리는 바로 김해 김씨
인 우리 엄마, 김언형이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할
아버지 대에서 끊길 뻔한
우리 집안의 족보, 대를 찾
아주셨다. 어머니는 어려서
부터 근본, 뿌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지만 내가 성인
이 되고나서야 대종회 종보를 받기 시작했
다. 무심코 봐왔던 종보였는데 뿌리교육을
한다고 해서 고민 없이 문의했고 바로 신청
했다. 대종회에서 선발된 장학생을 위한 교
육이라 했지만 학생은 몇 명 되지 않았고, 일
정이 끝나고 나서는 더욱 아쉬운 생각이 많
이 들었다.

청송심씨대종회에서 올해가 9회째로 전국
을 돌면서 매년 뿌리교육을 해왔는데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 취소되고, 올해 10년 만에 청
송에서 직접 견학하며 교육을 진행한 것이라
고 한다. 영상으로 봤던 것을 실제로 가서 보
고 어른들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 와 닿는 것
이 다른 것 같다. 나는 군 생활을 하면서
내 필요에 의해 찾게 되었지만, 어렸을 때부
터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왔다면 더 큰 꿈과
자긍심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에
심문의 어린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
가들이 매 교육에 꼭 참석해서 자신의 뿌리
에 대해 깊이 알고 더 발전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

동영상에 내가 궁금해 하던 뿌리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인지 매우 흥미로웠다. 세종대왕
의 왕비인 소현왕후가 청송 심씨라는 사실,
심대승 의병장 등의 조상님은 내가 심문이라
는 것을 더욱 자랑스럽게 했다.

소현왕후는 성격이 워낙 부드럽고 온화하
지만 기강이 엄정했고, 세종을 깊게 이해하
며 내조하고 내명부를 가장 안정적으로 잘
통솔하였다. 이는 세종의 업적에 좋은 영향
력을 끼쳤다고 평가받으며 조선 최고의 국모
이자 왕비라고 전해진다. 나도 외유내강의
리더로서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군을 이끌
고 싶고, 소현왕후의 혈통을 이어받은 심씨
로써 더욱 정진해야겠다.

중대묘소에 참배를 가기 전, 300년쯤 된 소
나무 한그루를 보았다. 만지송. 청송군의 보호
수이며 우리 종중산 소유인 천연기념물이다.

능묘라 불릴 만큼 주위에 일반묘지는 찾아
볼 수 없었고, 높은 산중턱에 시조의 묘가 있
었다. 소현왕후의 명으로 심어진 소나무가
무성하여 그야말로 청정지역이었다. 이런 주
왕산 일대가 심문의 소유로 잘 관리되고 있
는 것이 더욱 자랑스러웠다.

시조 묘소에 오르기 전에 있는 만세루는
비가 올 경우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어졌으
며, 그 옆에는 시조묘소 수호사찰인 보광사
가 있었다. 무엇보다 시조 묘 앞에서 능광 할
아버지의 열정적인 교육과 자부심은 나도 따
라 자랑스럽게 했다.

현비암은 찬경루 건너편에 있는 기암절벽
으로 시조의 장례 전날에 천둥벼락이 치고
나서 암벽이 아름답게 변하였다. 이를 보고
왕후가 태어날 징조라 했는데 소현왕후처럼
어질고 현명한 왕비가 탄생했다 해서 현비암

이라 전해진다.

찬경루는 세종의 명으로 청송군수가 건립
하였고, 이 누각에서 시조 묘를 바라보며 우
러러 찬미한다는 뜻에서 지은 것으로 소현왕
후를 애도하며 슬하의 여덟명의 대군이 2간
씩 지었다고도 전해진다. 용전천이 범람할
때는 찬경루에서 제사를 지내며, 송백강릉이
라는 현관은 안평대군이 직접 썼으나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경의재는 향과의 시조인 악은공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올리기 위해 건립한 재각이
다. 아들 3형제를 불러 벼슬을 하지 말고 고
향으로 가서 농사짓고 글 읽으며, 남의 부귀
를 부러워 말고 충과 효도하는 가문이 되라
며 두문동에 드는 날을 제삿날로 삼으라 하
셨다. 고려유신들이 은거한 마을을 두문동이
라 했는데 조선왕조는 두문동을 포위하고 불
살랐다고 전해진다. 원부할아버지의 시신도
찾을 수 없어 묘비만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
이 정말 안타깝다.

송소고택은 만석의 부를 이룬 심처대의 7
대손 송소 심호택이 지었고, 조선후기 민가
로서는 규모가 가장 큰 99칸의 고택이라고
한다. 하동에 최부자집이라면 청송에는 심부
자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솟을 대문
이 높이 있는 집안은 가마가 드나들어야 해
서 부자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세종대왕의 탄생일은 스승의 날이었
다. 한글을 창제하신 스승이기에 스승의 날
로 정한 것이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한다. 소나
무의 잎이 두 개씩 붙어있기에 부부의 사랑
을 나타낸다고 한다. 푸른 소나무라는 군가
를 좋아했는데 청송을 견학하며 더욱 소나무
에 애착이 생겼다. 저녁에 청송군청에서 근
무하시는 분께서 음악회까지 마련해 주셨다.
우리는 역시 즐길 줄도 알았다. 싱어송라이
터의 노래와 성악가 분들의 합창은 정말 신
나고 아름다웠다.

세미나실에 모여서 인터넷 족보 검색 방법
을 교육해 주셨고, 예절교육원장님, 경북대학
교 화학과 명예교수님으로 활동 중이신 심문
의 어르신께서 교육을 해주셨다. 연세가 있
으심에도 열정적인 교수님의 교육이 인상 깊
었다. 장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시고
자 교육을 준비해 오셨는데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아쉬웠다. 우리 심씨 가문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으며,
나도 후손들에게 이런 수준 높은 뿌리교육을
해 줄 수 있는 심씨의 가족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교육 시작 전만 해도 심씨여도 그냥 같은
성씨라고만 생각했는데 가까운 가족처럼 느
껴졌으며, 이제는 심씨 일가를 만나면 좀 더
특별하게 여겨질 것 같다.

열성적으로 대종회에 임하시는 광운대 교
수님께서 풍산심씨가 중국 절강성 죽둔촌에
서 그 뿌리를 찾은 것을 계기로 대종회에서
도 직접 중국을 탐방하였음을 보고하셨다.
120회 종보에서 죽둔 탐방기사를 읽었고, 나
도 중국을 비롯 전 세계 심씨 종친들과의 교
류는 머지않은 일일 것이라 기대해본다. 한
국 심씨의 700년 역사보다 이전인 2000년 전,
중국에서 심씨가 뿌리를 내렸고, 현재 우리
의 뿌리가 중국 죽둔에서 이어져 왔는지는
확인 중에 있다. 세계 어디에도 유래가 없는
'세계심씨 종친대회'가 북건성에서 '2014년에
열려 약 2000명이 참가했고 금년에 3회를 준
비 중이라고 한다.

심씨들이 세계 각국에 정착했고, 각 나라에
종친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신
기하고 자랑스럽다. 세계 속의 청송심씨로
나아갈 준비와 꿈을 키워나가야겠다.

우리 심씨 가문은 한 집안에서 3대 정승,
왕비가 3명이 나온 명문 집안이다. 하지만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는다. 우리는 옛
벼슬을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심씨 여성들도 뿌리에 대해 알고
조상을 섬기는데 더욱 일조했으면 좋겠다.
나는 결혼을 해서도 양쪽 집안에 대한 뿌리
교육을 다 시키고, 조카들은 돌림자로 이름
도 짓도록 조언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모든 일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소속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위하는 일이며, 나아가 우리가족, 우리나라,
인류를 사랑하는 심문일가이면 좋겠다.

기억을 되짚어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나의 소감을 심문 일가 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이 모든 것을 준비, 진행해주신 청송심씨
대종회 관계자분들께 소감문을 빌어서 후손
들에게 애정을 갖고 뿌리교육을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리, 보존해 주셔서 정말 감사
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청송심씨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며 청
송심씨 가문이 더욱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겠다.

2016. 9. 1
정현 올림



2016년 뿌리교육시 시조묘소 참배후 단체사진



7세조 이경공(夷敬公, 諱 : 瀚)종회 탐방



심 주 택

이경공종회 회장
공숙공종중 고문

- 종회의 연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924년 종회가 설립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한 침체를 거쳐 1970년 다시 종회를 재건하였다. 종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4,583명의 종원 명부를 확보 발송하여, 2007년 11월 10일 성균관 유림회관 정기총회에서 임원개선(회장 원섭)과 2010년 정기총회에서 주택 회장이 선출되어 재실 건립과 묘역 정화사업 등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2007년 활성화 이후 금년까지 9회의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 종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경공 이사회 임원은 회장:주택(문의공), 고문:재웅(청양군), 창섭(훈도공), 상훈(도사공), 감사:문보(문의공), 경선(선무공신), 부회장:상영(문의공), 문섭(훈도공), 총무이사:재석(청양군), 재무이사:상훈(도사공), 이사:재업(청양군), 재창(문의공), 재민(훈도공), 재성(선무공신), 창선(선무공신), 광은(도사공), 인섭(사어공), 봉섭(사어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경공 계보와 연보

홍부-연-용-덕부-온-화-이경공(瀚)으로 계승되었고, 이경공의 형제로는 참의공 인(潁)과 내자시관관공 원(浚)이 있었다.

- 이시애의 반란(1467)을 진압한 이경공(瀚)과 판관공(浚) 형제 세조대왕의 율타리가 되다!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아우인 판관공은 순절(殉節)하시었고, 형님인 이경공(瀚)은 반란 진압에 큰 공을 세웠다. 이로 인해 세조 대왕의 극진한 존숭을 받는 기분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영의정으로 계셨던 공숙공의 역할은 지대한 것이었다. 판관공을 반란군에게 잃은 공숙공은, 이경공을 또다시 반란군 진압에 투입하였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이경공은 조선의 문물을 완성한 성종(成宗)을 즉위케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시어, 좌리공신이 되었다. 조선 왕실의 큰 율타리가 되어 명문거족의 벌열가문을 지속적으로 형성해 되었던 것이다. 이경공은 후사가 없으시어 아우인 판관공의 둘째인 호양공(順徑)을 계자(系子)로 들이셨다. 호양공은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옹립하는데 공을 세워 '정국공신'이 됨으로써, 심씨 문중을 확실한 명문가

로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호양공의 아버지 이경공은 '좌리공신'이었고, 할아버지 공숙공도 '좌리공신'에 책록 되었으므로 3대에 걸쳐 왕실의 공신이 된 것이다. 조선 시대 청송 심씨는 어느 가문과 비길 수 없는 왕실의 든든한 율타리였다.

* 이시애 난이란? 1467년(세조 13년), 세조의 집권에 반대하여 길주를 근거지로 삼아 이시애(李施愛)가 일으킨 반란이다. 세조는 구성군 준(浚)을 진압 책임자로 삼아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토벌에 나섰는데, 이때 내자시 관관인, 이경공의 아우(浚)께서 순절하였다. 형인 이경공도 30명 장수의 한 명으로 출전하여 공을 세웠다. 이후 왕이 직접 토벌에 나서야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으나, 결국 4개월 만에 이시애가 처형됨으로써 종료됐다.

- 이경공 종회의 연중 행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기총회 : 매년 양력 3월 마지막 토요일

이사회 : 필요시 개최

시향 : 음력10월 첫째토요일

- 종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송조돈목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본 종중은 약47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실이 없어 2015년에 웅장한 재실을 짓고 준공식을 하게 되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본 종중의 년 임대수입은 약 9000만 원인데, 세금이 약 1억 원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토지 약 1만 천 평(1종 주거지역)을 매각 재원으로 임대사업 혹은 수익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이다. 종중의 취약계층의 노인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다.

- 이경공 종회의 자랑거리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 종중의 이사 선발은 종중 예하 6개 지파 회장이 2인씩 추천한 12명으로 구성된다. 종중 회장이 아닌 지파회장에게 추천권을 주어 투명하게 하기 위함이다. 회장과 감사 2인은 총회에서,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고문은 이사의 의견을 들어 회장이 선임한다.

- 요즘 대종회에서 연천의 청성백 덕부 할아버님의 재각 건립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청성백은 이경공의 증조부인데, 이경공 종회의 재각 건립에 대한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본 종중의 지파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3천만 원을 추렴해 내기로 결의해 진행 중이다. 더 큰 돈을 내지 못하여 마음이 안타깝다.

- 이경공 후손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청송 심씨는 명문중의 명문가인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일가들께서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정진하시기 바라며,

개인의 발전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시길 기대합니다.

- 일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종중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과 뿌리를 지키며, 친족 간 친목을 다지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행사에 참석율이 너무 낮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됐으면 합니다. 종중의 모든 행사에 아들과 손자 등 모든 가족이 참여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대종회에 건의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대종회에서 뿌리교육 및 교양강좌 시조묘소 참배 행사를 하고 있는 사업은 특히 젊은이에게 참 유익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계획 수립 시 각 종중에 협조와 홍보를 하면 좀 더 많이 참석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 종회탐방을 마치며...

파주 월릉면과 광탄면을 비롯한 일대에는 공숙공, 이경공, 정이공, 관관공 등 많은 선조님들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심씨 문중의 텃밭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경공은 조선 초기 세조대왕의 척족으로서, 왕실의 든든한 율타리가 되었다. 조선왕조에서 청송 심씨가 대명문가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경공을 비롯한 이 시기의 선조들이, 왕조의 기반을 닦는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종회 탐방을 마치고 귀경길에 관관공과 공숙공 묘소를 참배하였다. 이경공 종회 재석 총무님의 안내로 잘 정화된 묘역을 둘러보며 자손으로서 긍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세조대왕이 '작은 아버님'이라 존송했던 공숙공은, 파주 지역의 심씨 문중을 호위하면서 음력으로 자손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이경공은 어머니의 병환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다 병을 얻어 작고하시었다. 지극한 효(孝)의 전범을 보이신 분이다. 후손들 모두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경공 종회를 비롯한 종친 모임들이 자자손손 심세를 이루어 청송 심문의 위상을 높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탐방을 마친다.

2016. 9. 2

필자: 심재석(문학박사, 대종회 이사, 종보 편집위원)

동석: 갑택 문화이사

차기 종회 탐방예정

차기종회탐방 : 청심회 (회장 상돈)

탐방일자 : 2016년 11월 초

탐방원 : 양섭 편집위원, 갑택 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이경공 재실 준공식(2015. 11. 14)



이경공 시제(초헌 : 주택 회장)



정면에서 우로: 재석 편집위원, 재석 총무이사, 주택 회장, 갑택 문화이사

서해도원수(西海道元帥) 심덕부 진포대첩 승전비 건립계획

진포대첩(鎭浦大捷)은 고려 말인 1390년 9월 진포(鎭浦, 지금의 군산)로 곡식을 노략질하기 위해 침입(侵入)한 500척의 왜선과 27,000여명의 왜군을 서해도원수인 4세조 정안공 할아버지와 상원수 나세(羅世) 부원수 최무선과 함께 군선(軍船) 93척과 병사 5,000명으로 물리친 해전사상 가장 큰 승리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배경에는 부원수 최무선이 발명한 화포를 군선에 정착하고 군선 상부의 다락을 이용하여 높은 곳에서 적선을 공략한 심덕부 서해도원수의 지략과 뛰어난 전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서해도원수 심덕부 장군이 이룬 큰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여 후손으로서 아쉬워하던 차 좌승지공임피종회(회장 심상용)에서 서해도원수 진포대첩비를 건립하기로 결의

하고, 군산지역 역사학자인 함민구 선생과 진포대첩 심덕부 장군 전승기념비 건립위원회 회장 김청환(전 총경 퇴임)님과 함께 힘을 모아 약 1년 전부터 기초자료를 수집하던 중 군산역사박물관 경내에 서해도원수진포대첩승전비를 건립하여 위대한 심덕부장군의 업적과 민본주의 사상을 선양하기로 하였으며, 10월 중순경 군산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뜻을 모아 심덕부장군진포대첩승전비 추진 현판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군산지역과 좌승지공 임피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심문의 명예요 금지가 될 터인즉 모든 후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큰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 9. 1
좌승지공임피종회 회장 상용

청송심씨3세조청화부원군파종중 임원현황

(2016. 9. 30 현재)

직책	이름	지역	직책	이름	지역
회장	일용	경기 안성	이사	상영, 해철, 흥주	경기
부회장	영섭	경기 안성	이사	정보, 민섭	강원
감사	상구, 봉섭	강원, 서울	이사	재룡, 재혁	충북
총무이사	흥주	경기 안성	이사	수영, 정수	전북
이사	재운, 재신, 삼규, 봉섭, 광섭, 성보(광진구)	서울	이사	상우, 재문	전남, 광주
이사	태섭, 재영	부산	이사	원섭, 재홍, 흥섭	경북
이사	상배	대구	이사	동섭, 재화, 무섭	경남
이사	응무	인천	이사	남식	제주
이사	봉섭, 규선	세종, 대전			

지로 종보찬조 1만원 (2016.8.1~9.20)

서울강북 상백 영섭 형갑 성보 문환 의수 상선 상근 인보 종진 영일 재갑 훈종 하식 길동 준섭 용락 우용 재룡 원덕 호섭 재운 상덕 의철 타관 상근 재덕 종홍 지흥 세근 흥섭 덕택 상화 문섭 재운 수무 태식 원식 훈섭 원섭 상만 재규 이섭 상규 재복 진용 만택 태섭 태섭 길보 호섭 재용 일택 상진 재섭 일석 회수 만섭 상복 재운 진식 삼갑 재섭 재석 재길 인보 상록 정식 옥섭 기섭 찬섭 재근 재복 언중 광보 상봉 재원 재덕 상우 재선 치보 갑식 우섭 원식 광평 보성 태섭 규석 원중 규석 재일 우현 기관 상필 재원 행근 상호 재운 학민 상찬 효섭 기보 동석 규성 상은 남섭 찬호 규현 재철 윤환 기백 상희 정철 기섭 상호 재이 현보 정성 영희 진택 상업 규진 상원 상승 재옥배연옥천보 한석 도섭 사섭 진유 길용 영만 재협 기연 규준 수보 재광 규원 남식 안성 봉섭 우찬 상태 태식 용섭 두섭 성섭 창보 대식 용섭 재홍 우성 상만 상중 흥구 경식 대섭 익섭 능봉 성섭 하흥 상원 만복 영섭 흥섭 명식 우삼 재환 영일 상진 정택 재선 양섭 상덕 규훈 옥공 상숙 정성 영섭 재돈 상근 순자 현섭 판섭 민섭 명섭 우만 재영(당진) 재영 영진 태섭 상렬 정선 정우 일 규만 흥구 용보 상준 상운 의 상호 의석 수용 재홍 종섭 평택 병섭 영보 상영 용준 현구 윤섭 재휘 재철 규철 세택 원보 윤태 재록 재화 경구 영보 영섭 문수 재철 우권 선래 총일 재명 종선 규선 정자 재국 우정 규양 광섭 재출 함석 상옥 현규 흥섭 동섭 상하 주섭 성기 민섭 수용 길섭 상협 화섭 화섭 윤영 래형 상두 수영 영섭 형조 광보 운식 재운 유섭 응섭 순보 용보 훈 의순 성보 상훈 정진 상만 연식 상규 무석 기영 태규 의락 대보 재신 창래 상동 용택 태식 종식 갑진 재오 명보 만용 원석 상한 재학 도운 봉용 재춘 효식 재현 상태 정섭 상현 용섭 현준 길섭 남식 재국 재덕 재만 상돈 창호우성자동차 남진 재운 수섭 재일 참용 규송 재섭 광은 재명 원섭 규문 이석 기섭 양섭 재춘 상부 재식 인섭 길섭 춘길 용식 재혁 무석 할래 진택 재돈 현근 재천 찬식 상용 원섭 광섭 규정 재옥 운섭 상덕 재춘 원식 필보

각종 찬조현황 2016. 7. 24 ~ 2016. 9. 20

재각현성금	장학찬조	종보찬조
100,000 (대구)상철, (곡성)정구 (경기)안촌이사, (충전)동섭	500,000 상화(부회장)	500,000 언태(총무이사), 재서(재무이사), 갑택(문화이사) 200,000 재영(당진) 100,000 재권(김해), (서울)유섭, 효식(성남), (서울)태섭, 현보(서울) 60,000 강채(전남) 50,000 춘섭(서울), 대택(청송), 재철(경기), 우영(광주) 30,000 윤식(울산) 20,000 인천부평심만, 타관
임원회비		
부회장회비 300,000 정보부회장 감사회비 200,000 주섭감사 이사회비 50,000 (은평) 광섭, (강원)동섭, (과천)원보, (광주)준섭		

■ 개인 천만원, 종회 5천만원 이상은 준공시까지 사전개제

공숙공파 대총회 이사 (성보)	공숙공파 대총회 이사 (광섭)	공숙공파 대총회 고문 (재영)	공숙공파 대총회 회장 (감보 개인)	공숙공파 공숙공중총 회장 (웅섭)
1천만원 2015년 7월	1천만원 2015년 2월	1천만원 2015년 2월	1천만원 2015년 1월	5천만원 2014년 11월

■ 종보·장학찬조 50만원 이상 찬조시 2회 사전개제

대총회 (상임부회장 상화)	대총회 (총무이사 언태)	대총회 (재무이사 재서)	대총회 (문화이사 갑택)	울산내금위중회 (회장 영구)	곡산공중총 (회장 상영)
장학찬조 5십만원 2016년 9월	종보찬조 100만원 2016년 7월	종보찬조 100만원 2016년 5월			

문화재청 '정조어찰첩'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정조어찰첩'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정조어찰첩'은 정조가 1796~1800년 4년간 좌의정 등 고위직을 역임한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로 내용은 대부분 정사(政事)와 관련된 것들로 300통에 달하며, 어찰이 날짜순으로 6첩 장첩(粧帖)되어 있다.

형식은 일반적인 서간문의 격식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발신자인 정조의 편지에는 발인일자가 없으나, 수신자인 심환지는 수신한 일자와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 후대에 남길 목적임을 알 수 있으며, 조선 시대 서간문의 형식을 연구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봉익공 제단 참배후 단체사진

지난 8월 27일 대전 화수회(회장 聖輔) 회원 40여 명은 철원 봉익공 제단과, 포천 소재 좌의정 通原의 묘소를 성묘하였다.

중보편집위원 위촉

(2016. 9. 1부)



심후섭 (24세 약은공파)

본적 : 경북 청송
경력 : 아동문학 작가
교육학 박사
대구달성교육장
우리예절교육 원장



결혼을 축하합니다



심성기 (30세 도총제공파)

(대중회이사 / 편집위원)

일자: 2016년 10월 29일(토)

오후2시

장소: 춘천미래웨딩 2층

- 감사의 인사 -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상당기간 청송심씨대중회 검색이 되지 않았던 것을 재운 편집위원(한국일보 코리아타임즈 부국장)께서 재개토록 조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6년 9월 30일
대중회 회장

2016년 중보편집위원회 개최

일시: 2016년 12월 3일(토) 오전11:00

장소: 대중회 회의실

* 11월초 편집위원 개별 안내장 송부

취임(就任) 축하연(祝賀宴) 및 청심회 정기모임

일 시 : 2016년 9월 2일 18:30

장 소 : 국회의원귀빈식당

되었다. 일정이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일가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위원 양섭 -

국회의원귀빈식당에서 재철 국회부의장, 상정 정의당대표, 재권 외통위원장의 취임 축하연 및 청심회 정기 모임이 있었다. 청심회 상돈 회장, 전 회장단 상조, 재웅, 재안 회장 외 32명의 회원과 함께 일가들 모두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정치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위원이 되시고, 청송심씨를 더욱 빛내주기 바란다는 덕담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



취임 축하연 참석자 단체사진

2016년도 소중회 주관 추향 안내

소중회 주관					
世	諱(이름)	양력	음력	요일	장 소
五	都總制公(諱:仁鳳)	10.17	9.17	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65-1
	判書公(諱:義龜)	11.14	10.15	월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1315(설단)
	知成州事公(諱:繼年)	11.14	10.15	월	광주시 광산구 송치동 용진산
	知成州事公配位崔氏	11.15	10.16	화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仁壽府尹公(諱:澄)	10.17	9.17	월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安孝公(諱:濫)	9.15	8.15	목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401, 산의실
	三韓國大夫人順興安氏	10.14	9.14	금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산32-1
	淸原君(諱:淙)	11.7	10.8	월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산14
	현령공(諱:天柱)	10.30	9월未週	일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845
	돈재공(諱:天滉)	11.11	10.12	금	의령군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六	평산부사공(諱:灑)	11.1	10.2	화	원주시 단계동 사천마을 (설단)
	佐郎公(諱:溝)	11.14	10.15	월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1315(재실)
	愛庵公(諱:涓)	11.16	10.17	수	광주시 광산구 감적동 가정산
	良惠公(諱:石雋)	10.20	9.20	목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19
	領中樞公(諱:溶)	10.31	10.1	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恭肅公(諱:澮)	9.15	8.15	목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1-1
	靖夷公(諱:決)	11.6	10월첫째	일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321
	贈參判公(諱:孝)	10.15	9.15	토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설단)
	延日公(諱:自)	11.13	10월둘째	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恭肅公養父康主簿公	10.21	9.21	금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산12-6

공지사항

- 1) 청성백·정안공 재각건립을 위한 성금 안내
 - 2차 재각 건립 헌성금 모금운동을 2016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진행합니다. (농협 301-0159-0778-41 청송심씨대중회)
 - 2017년 1월 중보에 2016년 12월말까지 접수된 재각건립 헌성금 내역을 게재합니다.
- 2) 대중회 홈페이지 안내
 - 대중회 홈페이지 주소를 모르더라도 "청송심씨대중회"를 포털사이트에서 클릭하여 접속(검색)할 수 있습니다.
 - 대중회 홈페이지는 7가지 메뉴(대중회 소개, 뿌리탐구, 인터넷 족보, 동영상, 열린마당, 자료실, 중보신문)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회 사업추진사항 및 심문의 뿌리와 선조님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선현의 발자취, 심씨의 고향 추가 등재)
- 3) 각종 찬조금 명세에 착오가 있을 경우 필히 대중회 재무이사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중보찬조 지로용지는 7월과 11월 중보에 동봉 발송합니다. (찬조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발적 참여임을 알려드립니다)
- 5) 모범 종인 소개를 위한 종인탐방이나 중회활동을 전국 종인들에게 소개하는 중회탐방을 희망 시 대중회 감택 문화이사에게 신청바랍니다.
- 6) 2000년도에 발간된 대동세보(경진보)를 대폭 할인하여 1질(총 11권)에 6만원에 보급합니다.
- 7) 대중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중 회비가 미납되신 분들은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까지 미납 시 정관에 의거 임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7년 임원 명단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송금안내

청성백 정안공 재각건립 헌성금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0159-0778-41

송금안내

임원회비·중보찬조·장학찬조·족보대금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0107-5873-71